

대나무 향기 따라 담양 죽림욕 힐링 여행

허준성 | 여행작가

묵은 해를 보내고 설렘이 가득한 신년을 맞는 여행에 어떤 곳이 어울릴까 고민하다가 사계절 푸르름을 내어주는 담양 대나무 숲이 떠올랐다. 대나무 숲을 지나는 바람은 잎을 부딪쳐 소리를 내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 대나무의 고향 담양에서만 느낄 수 있는 '죽림욕'으로 머리와 마음을 씻어보면 어떨까. 덤으로 담양의 또 다른 명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가 코스 곳곳에서 시원한 녹색 터널을 만들어준다.



국내 최대 대나무 숲 죽림원

순천만 갯벌은 세계 5대 연안 습지로 240여 종의 새와 33종의 염생식물 및 저서동물과 포유동물이 저 나름의 생태계를 꾸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가 지정 문화재 명승으로도 지정되어 있다. 갯벌 한편에 자리한 순천만습지는 160만 평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 규모 갈대밭이 뽐뽐하게 들어차 1년 내내 장관을 이룬다. 갈대군락 사이로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데크길도 깔려있다. 길 따라 바람 따라 40분 정도 쉬엄쉬엄 걸어가면 순천만습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용산전망대가 나온다. 어찌면 순천만을 가장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곳이겠다. 해가 넘어가는 시간에 가면 진정한 순천만습지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INFO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림원로 119
- 061-380-2680
- 09:00~19:00(계절에 따라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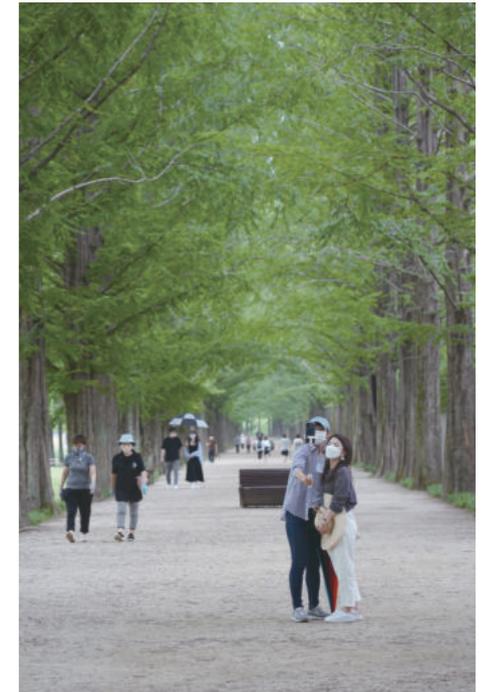
SNS 여행 사진 맛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1970년대 조성된 가로수로 심어진 메타세쿼이아가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어낸다. 한낮에도 햇빛의 거의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짙은 녹색의 터널을 이루고 있다. 바로 옆 24번 국도가 새로 생기면서 지금은 산책로로 바뀌었다. 담양 곳곳에 메타세쿼이아가길 있는데, 여기서는 차가 다니지 않아 편안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근처 가로수길에 함께 자리 잡은 개구리 생태공원과 담양에코센터도 함께 둘러볼 만하다.

INFO

- 📍 전남 담양군 담양읍 메타세쿼이아로 12
- ☎ 061-380-3149
- 🕒 09:00~18:00(계절에 따라 변동)



영산강 따라 힐링 산책 담양관방제림

관방제는 담양천(영산강의 시작) 변의 제방으로 이를 오래 보전하기 위해 나무를 심어 숲으로 만든 것이 관방제림으로 천연기념물 366호로 지정되어 있다. 1648년(조선 인조) 잦은 홍수를 막고자 성이성 부사가 만든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 200년이 넘는 수령의 팽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등이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며 장관을 이루고 있다. 잔잔히 흘러 목포까지 이어지는 영산강을 따라 산책하는 맛이 일품이다. 관방제림을 따라 걷다 보면 담양국수거리로 이어진다. 영산강 변을 따라 나무 그늘이 우거지고 그 아래 강을 내려다 보며 국수를 먹을 수 있도록 평상과 테이블이 줄을 잇는다. 강변을 따라 불어오는 시원한 강바람을 등에 업고 먹는 국수라 어느 국숫집에 들어가도 실패하지 않는다. 산해진미도 아니고 국수 한 그릇에 얻어지는 풍경치고는 과할 정도.

INFO

-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7길 37
- ☎ 061-380-2812
- 🏠 상시 이용



대나무 하나로 들여다보는 우리 역사 한국대나무박물관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담양은 전통문화의 고장 그리고 대나무의 고향으로 불린다. 예로부터 대나무 생산량이 많고 대나무를 이용한 죽공예품이 유명했다. 대나무 잎은 차로 사용되고, 대나무 뿌리는 뉘싯대나 악기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대나무박물관에는 뿌리부터 잎까지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이 모두 이로운 대나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대나무 세공품이 전시되어 있다.

◆ INFO

-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향문화로 35
- ☎ 061-380-2909
- 🕒 09:00~18:00



민간 정원의 최고봉 소쇄원

담양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여기만 한 곳이 없다. '물이 맑고 시원하며 깨끗한 원림'이라는 뜻의 소쇄원은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민간 원림(정원)이다. 대나무와 소나무 등 다양한 나무로 둘러싸인 소쇄원은 가운데 자그마한 계곡이 중심을 관통하며 그 풍경의 절정을 긋는다. 가운데 정자에 걸터앉아 물소리 바람 소리에 기대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한 폭의 수묵화 같은 풍광에 깊이 빠져들게 된다.

◆ INFO

- 📍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소쇄원길 17
- ☎ 061-381-0115
- 🕒 09:00~17:00(계절에 따라 다름)

